



[산업] 현대모비스정기이사회 주주가치·미래기술 극대화 08



[라이프] 홈플러스 '올라인' 강화 점포, 배송기지 탈바꿈

낮설지만 신비로운... 밭길 닿지 않은 미지의 땅, 몽골



자브항일주 보르하린 사막

메트로 트래블

우리나라와 거리상 가까운 나라지만, 다소 낯선 여행지가 있다. 바로 몽골이다. 몽골은 최근 남들과 다른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깨끗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동떨어져 확진자 1명 없는 클린 관광지이기도하다.

우리나라 면적의 14배 몽골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곳이 많다. 이미 '몽골여행' 하면 떠오르는 대중적인 여행지에 비해, 낯설고 생경한 몽골 여행지들이 눈여겨 볼 만하다.

몽골리아세븐데이즈 황용모 대표는 "그동안 '낮선 오지 여행'으로 소개되었던 몽골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몇몇 여행지로 여행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었다. 올해는 입소문 나면서 몽골로 떠나려는 여행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서몽골 대초원여행

서몽골 대초원여행은 몽골의 서쪽 끝, 국경과 맞닿은 '알타이 타왕복드 국립공원'은 사계절 내내 만년설을 만나는 여행이다. 가장 유명한 '후이픈 봉우리'를 비롯해 5개 산이 모여 있는 이 국립공원은 현지인의 손길도 거의 닿지 않는 곳이지만, 모험적인 세계 각

'낮선 오지 여행'으로 입소문 캠핑·트레킹·승마 즐길 수 있어 사막·만년설... 자연의 아름다움도

국의 여행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익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몽골 국내선과 차량으로 이동하며, 캠핑과 트레킹, 그리고 승마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 자브항일주, 하이르항 명산 트레킹
다큐멘터리 촬영지로 소개된 적 있는 '자브항 아이막'을 탐험하는 자브항 일주는 베일에 싸여있던 몽골 중심부를 탐험한다. 사막과 오아시스, 그리고 만년설산이 공존하는 곳에서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오브제를 만날 수 있다.

몽골에서 두 번째로 큰 아이막(우리나라 행정구역상 '도'에 해당)인 '고비알타이 아이막'으로 떠나는 네가지색 고비알타이와 몽골의 3대 명산 중 하나인 '아스랄트 하이르항'으로 떠나는 하이르항 명산 트레킹은 국내에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다. 남을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길이 기준이 되는 여행을 꿈꾼다면 하루라도 먼저 이곳으로 떠나자.

현재 몽골리아세븐데이즈는 업계에서 가장 다양한 몽골여행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몽골의 이색여행지



서몽골 대초원여행 차장굴.



하이르항 명산트레킹 캠핑.

뿐만 아니라, 몽골을 처음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초원사막', '센트럴힐링', '고비사막일주'는 미지의 나라 몽골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 꾸준한 사랑을 받을 관광지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긴 시간 휴가를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금요일 하루만 휴가 내면 다녀올 수 있는 '몽골 밤도깨비 2박4일' 상품까지 새로 출시해 '클린 몽골, 어드벤처 몽골' 상품의 효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희 기자 lnh@metroseoul.co.kr

코레일 "KTX 타고 동해 여행 어때요"

KTX 연장 운행... 기차여행상품 출시

한국철도(코레일) 수도권동부본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동해역까지 KTX가 연장 운행됨에 따라 서울~동해까지 KTX를 타고 떠나는 기차여행상품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동해시 일대와 정동진 등 동해안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강릉역

에서 KTX 하차 후 연계차량을 탑승하거나 무궁화호로 환승해야만 했다.

코레일 수도권동부본부의 이번 연장 개통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되고 동해안 일대 관광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강원지역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3일 첫 출시하는 해당 상품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는 주암해변을 시



강릉 정동진역 전경.

/코레일

작으로 묵호등대가 있는 묵호항, 두타산과 청옥산을 배경으로 하는 무릉계곡, 마지막으로 정동진까지 방문하는 하루 일정으로 짜여진다.

/이민희 기자

한국여행업협회 “日 등 6개국 여행자제 권고 취소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유감 표명 여행업 생태계 무너지고 고용 '흔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는 지난 2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중국 이외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이라 발표한 6개 지역에 대해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한 건에 대해 국민과 여행업계에 혼란과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킨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는 감염 확산이 둔화되고 사망자가 없으며, 대통령 또한 국민들이 지나치게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시점에 상대국에게도 한국여

행을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 상호교류가 기본인 관광산업 근간을 흔드는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 후 외교부는 여행경보 단계 조정 계획이 없음을 밝혀 소비자와 업계간 분쟁을 촉발시켰다. 이번 사태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아 10만여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의 고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중수본은 이제부터 개인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이번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국민의 불안한 심리 치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

해외관광기관, 코로나19 타격에 대응 나서

북마리아나·마카오 등 적극 대처 필리핀 대통령 관광지 순방 나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필리핀 내 대표 관광지를 순방하며 필리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곳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예정이라고 2월 13일 필리핀관광부가 밝혔다.

필리핀관광부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보라카이, 세부, 보홀을 다음주 중 방문할 계획이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도 촬영한다는 계획을 전세계에 알렸다.

우리에게 사이판으로 알려진 북마리아나 제도 주지사는 1월 29일 수요일 이후로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여객기의 입국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국 외교부는 건강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모범사례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전염병에 대한 국제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카오정부관광청은 전세계적으로 확산 추이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카오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1월 27일 00시부터 후베이성 출신 방문객들을 마카오 밖으로 안내하고 후베이성 출신, 경유 방문객들의 입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2월 10일에 26번째 27번째로 확진된 환자가 광둥성에서 마카오를 거쳐 1월 31일 에어 마카오 NX826 편으로 국내에 입국한 여정이 확인됨에 따라 마카오에서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는 23인에 대한 역학 조사를 즉시 실시하였고 이들의 소재가 확인된 국가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이민희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에 해외골프여행업계 '울상'

기존상품 변경·새로운 상품 출시 사이판·일본 등 골프장 어려움 겪어

"골프여행업계도 직격탄을 맞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종사자들의 고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A 해외골프 전문여행사 B사장은 한탄하며 "넋 놓고 볼 수 만은 없지 않느냐"며 "1~3인 위주의 골프전문여행사 및 관련업이 다 죽게 생겼다"고 정부차원과 여행관련 협회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해외골프 여행업계가 바짝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몇 전문여행사가 기존상품을 변경 및 새롭게 만들어 시장에 내놨다.

우선 가자골프(주)에은항공여행사는 오는 3월 19~22일 까지 'VIP고객초청 사이판 라오라오베이 골프 3박4일

(90홀)'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1, 2월 마케팅을 못해 상황을 지켜 볼 수 밖에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상품은 다시 기획해 연중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가자골프 김수호사장은 밝혔다.

작년 일본 '아소스카이블루골프리조트'와 계약한 일성여행사 계열 부라보골프 관계자는 '골프·숙박·온천·음식' 등 자랑거리가 많은 '아소스카이블루골프리조트'와 계약해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하려했으나 '노재팬' 및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봤다며 안타까워했다.

태국 후아힌 마제스티 크리크 컨트리 클럽 전문골프여행사 리치골프투어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건으로 방콕에서 가까운 골프장 영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골프전문여행사의 현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이민희 기자